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8. 30.(화) 11:00 < 8.31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
담당 부서	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	책임자	과 장 고상미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일한 (044-203-4874)

주요국(미국/중국)의 최근 산업·통상 입법 동향 논의

- 산업통상자원부, '22년 제4회 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8월 30일(화), '22년 제4회 『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』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.

【 회의 개요 】

- **일시 / 장소** : '22.8.30(화), 14:00 ~ 15:00 / 온라인
- **주 제** : "주요국(미국/중국)의 최근 산업·통상 입법 동향"
  * ❶중국 : 「反외국제재법」 및 관련 비관세조치
    ❷미국 : 「반도체 육성법(CHIPS and Science Act)」, 「인플레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」
- **참 석** : 유관기관, 업종단체 및 회원사, 학계 등 약 40명

(발표자) 김성욱/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**(토론자)**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
○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·관 통상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하고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에 출범하였고,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다.

*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(4月) : "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"
 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(5月) : "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"
 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(6月) : "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·정책 동향"

○ 금번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, 유관기관, 업종단체 및 기업, 학계가 참여하여 "주요국(미국/중국)의 최근 산업·통상 입법 동향"을 주제로, 동 법령과 관련된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박대규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"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,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·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"고 평가하면서,

○ "이러한 맥락에서,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국내 법령·제도와 관련하여 통상법 전문 로펌을 통해 설명을 듣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"이라고 언급하였다.

□ **(발표1)**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중국 「반외국제재법*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조치 동향을 소개하면서, “중국은 타국의 경제·주권·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 반외국제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”고 설명하며,

○ “우리 기업들이 한-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·투자 시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·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”고 언급하면서 “동 법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면책 조항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.”고 제언하였다.

* 「반외국제재법」('21.6 발효) :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·조직에게 입국 제한, 자산 동결, 거래 제한, 또는 기타 조치들의 시행 근거 규정

□ **(발표2)**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「반도체법*」 및 「인플레 감축법**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, “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 보조금에 우려 국가들을 배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등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”고 설명하며,

○ “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,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하였다.

* 「반도체법(CHIPS and Science Act)」('22.8.9 발효) : 미국 내 반도체 제조($527억 + 세액공제) 및 첨단기술·기초과학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($1,700억 규모)

** 「인플레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」('22.8.16 발효) :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, 청정에너지 투자 및 헬스케어 부문에 재정 지출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입법·제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,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022년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Ⅰ.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○ (목적) 주요국들의 통상관련 제도 및 동향 파악, 관련 협회·업계·전문가들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

Ⅱ. '22년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○ 일시 : '22.8.30(화) 14:00-15:00

○ 장소 : 화상회의 / 참석자 개별 접속

○ 주제 : 주요국(미국/중국)의 최근 산업·통상 입법 동향

* ❶미국 : 「반도체 육성법(CHIPS and Science Act)」, 「인플레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」
❷중국 : 「反외국제재법」 및 관련 비관세조치

- (발제) 김성욱/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
- (토론)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
○ 참석대상 : 유관기관·업종단체·기업·학계 등

- **(유관기관)** 한국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KOTRA 및 회원사
- **(업종단체)**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자동차협회, 반도체협회, 전지산업협회, 정밀화학협회, 화학섬유협회 등 업종별 협회 및 회원사

Ⅲ. 세부진행(안)

시 간(분)		내 용	비 고
14:00~14:05	5′	인사 말씀	신통상질서정책관
14:05~14:35	30′	**주요국(미국/중국)의 최근 산업·통상 입법 동향** - ❶ 중국 : 反외국제재법 및 관련 비관세조치 - ❷ 미국 : 반도체 육성법, 인플레 감축법	김성욱 변호사 /권소담 변호사 각 발제
14:35~14:40	5′	지정토의 (의견 및 질문)	박효민 변호사 토론
14:40~15:00	20′	자유토론	참석자